

투베르쿨린반응 검사 Tuberculin Skin Test

결핵이란 무엇인가?

- 결핵 (TB)은 *Mycobacterium tuberculosis* 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.
- 결핵은 폐를 비롯하여 몸의 여러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투베르쿨린반응 검사란 무엇인가?

- 투베르쿨린반응 검사 (TST)는 결핵의 감염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이며, 망투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
- 피부 바로 밑, 주로 왼팔의 팔뚝 부분에 작은 주사를 한 후, 48 - 72 시간이 지난 뒤 반응(부풀어 오름)이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사부위를 조사해 봅니다.
- 결핵균에 감염되었거나 BCG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주사부위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. 부풀어 오른 부위는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
- 소수의 사람들이 TST 양성 반응을 나타낼 것이나, **결핵균에 감염되었어도 결핵질환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**

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(TST)를 하기 전에

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.

- 림프종 또는 호지킨씨병을 비롯하여 어떤 종류이든 암을 앓고 있음
 -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약을 사용하고 있음, 예: 코르티코스테로이드 (프레드니손), 시클로스포린 또는 화학요법 약물 (항암제)
 - 최근에 전염병을 앓았음 (지난 한 달 사이에), 예: 독감, 홍역, 또는 백일해
 - (지난 한 달 동안) 이하선염, 홍역, 풍진 또는 수두 예방접종을 했음
 - HIV/에이즈를 앓고 있음
- 위와 같은 경우엔 TST의 판독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주사부위 관리

- 주사부위를 긁지 마십시오.
- 주사부위에 드레싱을 하거나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마십시오.
- 수포가 생길 경우 터뜨리지 마십시오.
- 일, 스포츠, 샤워 등 모든 정상 활동을 계속해도 됩니다.

검사 후의 절차는?

- TST를 한 후에는 반응도를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**48 -72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진료소에 오셔야만 합니다.**
- TST 반응이 음성인 사람 중에는 TST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반복하는 이유는?

- 시간이 지나면서 TST에 대한 반응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TST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반응이 감소되었던 경우라면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이를 다시 끌어내기 위해 두 번째 TST (2 단계 TST)를 실시합니다.
- 부정확한 양성반응 및 음성반응은 지속적인 평가 및 치료에 관한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2 단계 TST는 그런 부정확한 상태를 명백히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곳을 떠나신 후 검사에 관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
본 흉곽내과 진료소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